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5호 [무제 제25228호] 주제 105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도발망동을 부린 박근혜역적패당의 소굴부터 초토화해버리고 남반부를 해방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저 하늘에 태양이 하나
이듯이, 가슴에서 뿜어내는
심장이 들이칠수 없듯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
이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
우리 민족의 운명이며
미래이시다.

역척불변의 이 선념과
의지를 뼈에 새기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
군민을 열과 정을 다해
보살피고 지켜주며 창창한
미래를 밝혀주게시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다.

혁명의 최고수뇌부인
당중앙위원회의 드락에
자기 운명의 명줄을 잇고
사는 천만군민은 미래의
사축 밑에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
련》을 감행한 박근혜역적
패당의 특대형범죄행위
들이 나라 모든 가정들
에 대한 강도배들의 천인
공노할 만행으로 간주하고있다.

행부의 웃음소리 넘치는 자기 집 창문을
넘어 무딘 칼을 들고 뛰어드는 남강도를
앞에서 지켜볼 주인은 세상천지에 없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대결
망동을 또다시 감행함으로써 역사와 민족
앞에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망녕이 든 박근혜와 괴뢰군부장대우리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천배배부수의 열기로

하여 선군조선이 분노에 치를 떨고 격노한
백두산총대가 무심게 피성치고있다.

전군의 장병들이 남반부정정을 위한
진군명령을 기다리며 미래와 피의격멸
의 무수심을 뒤흔 뚫어고있는 격진전야의
시기에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
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
타격연습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
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
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원수들의 무모한 도발망기를 다발적

이고 편속적인 공격전으로 무자비하게
짓몽게버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실 시각을 기다리는 혼연장은 격동상태
에 있었다.

연습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은
미래와 박근혜역적패당을 모조리 죽탕쳐
버림으로써 분노로 치를 떨고있는 이 나
라 천만군민의 가슴에 서린 원한을 기어
이 끌고야말 열적의 의지로 세차게 고통

시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한 전선대련합
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을 진행하
여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열기를
보여주고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미래
와 피의역적패당에게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기려는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파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번 으 로 계 속



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명수대장, 인민무력부장
박영식대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조남진
중장,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조경철대장, 조선인민군
포병국장 윤영식중장이
맞이하였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
원들, 총정치국, 인민무력
부, 총참모부 지휘성원들,
군중사령관들과 정치위원
들, 군단장들과 정치위원
들, 포병부대 부대장들과
정치위원들, 각급 군사학교
교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일군들이 연습을 참관
하였다.

사상최대규모로 조직된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
연습은 무덤하게도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와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을
노리고 《정밀타격훈련》을
공개적으로 감행한 박근혜
역적패당의 본거지인 서울

